

# “대머리 분장, 너무 잘 어울려 걱정했죠”

###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내과 박원장’서 40대 병원장 변신 이서진 “같은 중년으로서 박 원장에 공감...재밌고 편하게 촬영한 작품”

“대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웃겨야 하는데 이렇게 잘 어울리면 어떻게 하지 생각이 들었어요. (웃음)”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내과 박원장’에서 민머리의 40대 내과 병원장으로 변신한 배우 이서진(51·사진)이 탈모인으로 분장한 소감을 밝혔다.

7일 화상으로 만난 그는 “특수분장을 한 채 연기하는 게 어려웠다”면서도 “그동안 한 작품 중에 제일 재밌고 편하게 촬영했다”고 데뷔 이래 첫 시트콤 도전에 만족감을 표했다.

이서진이 연기한 박 원장은 생계형 초보 개원의로, 적자를 탈출하기 위해 병원 내 ‘커피믹스 제한 정책’을 공표하고 24시간 야간 진료를 시작하는 ‘짠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특히 흰하게 벗어진 머리를 한 그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 양 갈래 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여장 사진은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서진은 “이렇게까지 하는데 (드라마를) 봐줘야 한다든가 제가 전 재산을 탕진해서 이 작품을 찍었다는 반응들이 기억에 남는다”며 웃었다.

다만 “(박 원장 역할이) 이미지 변신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 나라의 왕이나 어느 기업의 실장보다는 40대 중년이 제겐 훨씬 더 익숙합니다. 박 원장은 제가 가진 모습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같은 중년으로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박 원장을 “의사라기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한 중년 남자”라고 설명한 그는 작품을 통해 개인적으로 위로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와이프도 아이들도 다 문제가 많은데도, 밖에서 겪은 힘든 일을 가족을 통해 위로받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답했다.

“내과 박원장”은 이서진의 첫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작품이다. 그는 “OTT다 보니까 간접

광고(PPL)도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대놓고 했는데 정말 새롭고 재밌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라미란, 차청화, 김광규, 신은정 등 동료 배우들과의 호흡도 자랑했다.

“성격이 워낙 밝고 재밌는, 코미디에 적합한 분들이 오셔서 호흡은 너무 좋았어요. 촬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서로 노느라고 바빴죠. 특히 라미란 씨는 어떤 역할을 해도 다 잘 스며들 것 같은 분이 항상 호흡을 맞춰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정극이나 스텔러 같은 다른 장르에서도 같이 연기해보고 싶어요.”

드라마 ‘파도 위의 집’ (1999)으로 처음 얼굴을 알린 이서진은 올해가 데뷔 23년 차다. ‘다모’, ‘불새’, ‘이산’ 등의 로맨스 작품을 통해 대중들에게 확실한 존재감을 각인시켰던 그는 ‘꽃보다 할배’, ‘윤식당’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며 친숙한 이미지의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배우로서 2018년 개봉한 영화 ‘완벽한 타인’에서 능글맞은 성격의 레스토랑 사장으로 연기 변신에 성공한 뒤 드라마 ‘트랩’, ‘타인즈’에 이어 시트콤 ‘내과 박원장’까지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있다.

최근 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의 인기로 ‘이산’ 속 그의 연기가 다시금 회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언급되는 것도 참피하다”고 멋쩍은 웃음을 보였다.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로서의 목표보다는 한 작품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작품을 볼 때도 ‘잘 될 것 같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겠다’ 싶은 것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배우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가 느끼기에 재밌는 작품들을 계속 선택할 것 같아요. 이산은 이제 준호죠. 저는 박 원장입니다. (웃음)”

이서진은 “이렇게까지 하는데 (드라마를) 봐줘야 한다든가 제가 전 재산을 탕진해서 이 작품을 찍었다는 반응들이 기억에 남는다”며 웃었다.

다만 “(박 원장 역할이) 이미지 변신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 나라의 왕이나 어느 기업의 실장보다는 40대 중년이 제겐 훨씬 더 익숙합니다. 박 원장은 제가 가진 모습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같은 중년으로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박 원장을 “의사라기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한 중년 남자”라고 설명한 그는 작품을 통해 개인적으로 위로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와이프도 아이들도 다 문제가 많은데도, 밖에서 겪은 힘든 일을 가족을 통해 위로받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답했다.

“내과 박원장”은 이서진의 첫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작품이다. 그는 “OTT다 보니까 간접



## 예능 ‘로컬식탁’으로 배성재, MBC 입성

배성재 아나운서(사진)가 MBC TV 새 예능 ‘로컬식탁’을 통해 처음으로 MBC 정규 프로그램 진행을 맡는다.



‘로컬식탁’은 이상민, 하석진, 배성재, 주우재가 프로그램 진행자로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네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나 지역 음식에 술을 곁들이면서 음식과 지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미식 인문학 토크쇼다.

연출을 맡은 박선영 PD는 “집 밖으로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신선한 로컬 푸드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시청자들의 시각과 미각, 여행에 대한 대리만족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 달 말 첫 방송 예정. /연합뉴스

## 이유리·이민영·윤소이 ‘마녀는 살아있다’서 친구로 호흡 맞춘다



배우 이유리(왼쪽부터), 이민영, 윤소이.

배우 이유리, 이민영, 윤소이가 동갑내기 친구로 연기 호흡을 맞춘다.

TV조선 새 드라마 ‘마녀는 살아있다’ 측은 “이유리, 이민영, 윤소이 캐스팅을 확정 지었다”고 7일 밝혔다.

이 작품은 불혹의 나이에 죽이고 싶은 누군가가 생겨버린 동갑내기 세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블랙 코미디다.

이유리는 유명인 남편과 수재 딸을 둔 전업주부 공마리, 이민영은 재벌가 외며느리 채희수, 윤소이는 속판 썩이던 남편의 사망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게 된 양진아로 분해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진 40대 여성을 연기한다.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폼위있는 그녀’를 연출한 김윤철 PD의 5년 만의 복귀작으로도 관심을 모으는 ‘마녀는 살아있다’는 오는 5월 말 처음 방송된다.

/연합뉴스

## 아픔 겪고 돌아오는 빅뱅...4년 만에 신곡 발표

그들 빅뱅(사진)이 올봄 4년 만의 신곡을 발표하고 가요계로 돌아온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7일 밝혔다.

빅뱅이 신곡을 내는 것은 2018년 3월 싱글 ‘꽃길’ 이후 처음이다. 빅뱅은 신곡 녹음을 마쳤고, 뮤직비디오 촬영을 앞두고 있다.

2006년 데뷔한 빅뱅은 ‘거짓말’,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판타스틱 베이비’(FANTASTIC BABY), ‘뱅뱅뱅’(BANG BANG BANG) 등 많은 히트곡을 냈다. 빅뱅은 2017년 탑을 시작으로 지드래곤, 태양, 대성이 차례로 군 복무를 하면서 4년의 공백기를 보냈다.

또 전 멤버 승리가 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버

닝썬 게이트’에 연루돼 팀에서 탈퇴한 것은 물론 연예계에서도 은퇴했고, 탑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각종 사회적 논란에 휘말리며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건·사고로 돌아선 대중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탑은 YG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을 끝내고 개인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추후 아티스트이자 사업가로서 다양한 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YG엔터테인먼트는 “빅뱅 외에도 개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싶다는 탑의 의견을 존중해 멤버들이 잘 협의했다”며 “탑은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빅뱅 활동을 같이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